

지역주민에게 매력있게 다가서는 클래식 향연

▶ 정음 C,D 윈드 앙상블 하우스 콘서트 숨... 정음서 큰 인기

전문 연주자들 참여... 매일 지속적 공연으로 청소년·성인들까지 유료 관람객들 폭 넓어

정음의 C,D 윈드 앙상블(C.D Wind Ensemble)이 주최하는 하우스 콘서트 숨, '클래식과 함께 하는 감성여행'이 매일 흥행 질주를 이어가며 정음에서는 한 번도 성공한적 없는 유료 공연의 성공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클래식 전문 연주자들이 참여해 전통 클래식으로 유료화 공연을 이어가고 있지만 매일 지속적인 공연이 이어지며 유료 관람객들의 폭도 점차 청소년, 대학생,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수용층의 다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다.

정음 C,D 윈드 앙상블은 2016년 5월 김동원 (주) 크루즈 산업개발 회장이 고향 정음에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클래식 음악문화 정착을 위해 순수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모집, 정음문화발전의 일환으로 정음 클래식 연주단 C,D 윈드 앙상블(단장 유명진)을 결성하며 시작했다.

창단 이후 앙상블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음악적 정서 함양을 위해 일부 소의 시설들을 찾아가 연주하는 봉사연주와 함께 한편으로는 지역 청소년들 가운데 클래식 인재의 조기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매주 4회에 걸쳐 클래식 연주연습을 진행하며 그 모델로 시민과 연주단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을 무대에 세워왔다.

2016년 6월 첫 공연은 바순 독주회로 시작되어 7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듀오 콘서트, 8월 클라리넷 독주회, 9월 해금 독주회, 10월 트럼펫 독주회, 11월 현악 사중주, 12월 첼로 독주회, 2017년 1월 피아노 트리오(3중주) 콘서트 등 일찍이 정음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전통 클래식 공연을 선보여 왔다.

뿐만 아니라 C,D 윈드 앙상블은 오는 21일 아홉 번째 무대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독보적인 음악과 품격 있는 무대매너로 최상의 예술성을 선사해온 소프라노 서희정 동덕여대 교수의 성악 독창무대를 마련, 정음 클래식 마니아들의 가슴



정음의 C,D 윈드 앙상블(C.D Wind Ensemble)이 주최하는 하우스 콘서트 숨, '클래식과 함께 하는 감성여행'이 매일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을 뜨겁게 달군다는 포부다.

C,D 윈드 앙상블 김동원 예술감독은 "3월 목관 5중주, 4월 호른 독주, 5월 금관 5중주, 6월 목관 앙상블 등의 무대가 이미 준비되어있다"며 "향후로도 우리 앙상블은 클래식 공연뿐만 아니라 정음의 문화예술 사업의 일환으로 '정음 문화예술 창작소'를 개소하여 정음 문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C,D 윈드 앙상블은 2016년 일정한 장소를 얻지 못해 처음 정음초대교회 내 서종표 홀 무대에 마련해 오던 '하우스 콘서트 숨' 무대를 2017년 1월부터는 정음YMCA 청소년수련관 녹두홀로 옮겨 관객들의 접근성과 친밀성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 공연 & 전시 ◀

조각으로 소나무를 그린다

조각가 황영주 개인전, 21일부터

조각가 황영주 씨가 2004년 첫 개인전 이후 오랜만에 전시를 갖는다.

이번 전시는 완주군에 위치한 지방행정연수원 갤러리 개관 기념초대전으로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열린다.

'조각으로 그린다'전에서 작가는 기존에 해왔던 기·소통·생성을 주제로 한 비구상 작품 10여점과 최근 진행 중인 소나무 연작 10여점 등 총 30여점을 선보인다.



황 작가는 소나무로 대표되어 근래 들어 이를 소재로 작업을 해오고 있다. '구불구불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자유로운, 자유로움 속에서 느껴지는 절제의 미, 고급스럽고 우아한 자세에서 풀려져 나오는 힘찬 에너지...작품의 소재로 선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소나무를 예찬한다.

이와 더불어 한옥을 철거할 때 나오는 목재인 '고재' 역시도 작가의 작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이다. 작가는 오랜 세월 건축물의 일부가 되어 군더더기 없이 곱삭은 고재에 색을 입히고 그 위에 등을 융접한 소나무 작품을 살포시 올려놓는다.

작품은 목재의 따뜻함과 등의 강한 물성이 묘한 조화를 이룬다.

황영주 작가는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했다. 국제전 및 단체전 참가 등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쳐 왔으며 전국 온고를 미술대전 환경 조형부문 우수상과 전북 미술대전 조각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해은 기자

부안군, '스토리가 있는 마을축제' 지원대상 선정

주산 알골달콩 블루베리 개암동 벚꽃축제 등 4곳

부안군이 2017년 스토리가 있는 마을축제 선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주산 알골달콩 블루베리 축제 등 4개 축제에 각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스토리가 있는 마을축제는 마을 고유 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해 마을 공동체성 회복과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개암동 벚꽃축제, 도농교류 힐링관광 축제, 알골달콩 블루베리 축제, 생생 힐링마을 축제 등이 선정돼 개최된 바 있다.

올해는 총 6개 마을축제가 공모를 신청했으며 심의결과 주산 알골달콩 블루베리 축제, 풍진 귀농인이 하는 우리 지비가자 축제, 진서 농촌문화체험 힐링관광 축제, 변산 호랑가시나무 향기 축제 등 4개 마을축제가 축제 프로그램 타당성 및 주민참여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부안군 이동근 농업경영과장은 "축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위해 선정심의회를 개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했다"며 "선정 이후에도 경쟁력 있고 주민이 행복한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군 '전북 거리극축제' 공모사업 선정

도비 2500만원 지원받아

고창군이 '2017 전라북도 거리극축제'의 '노상놀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2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사업은 고창군과 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해 고창군 전통연희 퍼레이드 '모양대로 GO~!'를 타이틀로 오는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한옥자원 아간 상설공연과 연계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실지리, 놀지리 등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머물다 가는 체험형 관광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 문화관광재단이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일원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군민들과

관광객들에 불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단원 모집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 상설공연추진단은 2017년도 새만금·전북관광브랜드 공연을 함께 만들어 갈 예술단원(추가) 및 연수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 및 인원은 예술단원의 새만금(무용 3명)과 브랜드(소리·연기/무용 7명), 연수단원의 새만금(무용 2명)과 브랜드(소리·연기/무용 4명) 등 총 16명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다.

/정해은 기자

22일 전주문화재단 '작은 콘서트' 세번째 공연

동산동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서

(재)전주문화재단은 '작은 콘서트, 문화가 있는 마지막 밤'을 세 번째 공연을 오는 22일 오후 7시 동산동에 위치한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에서 연다.

이날 무대에는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을 이용하는 민간예술단체(예술가)인 Tap(탭댄스), MERCY중원D(방송댄스), 소울앙상블(합창)과 통기타리스트 유성운(노스텔지어) 씨가 올라 공연을 펼친다.

정경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는 공

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간공연예술단체(예술가)의 연습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개관한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은 이용자와 소통하는 운영정책을 추진하고자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간은 뮤지컬·댄스 등 대규모 연습이 가능한 음향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대중음악 분야 연습을 위한 악기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드럼·피아노 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정해은 기자



민요와 재즈의 즉흥적 결합

내달 4일 익산예술의전당 '한국남자'

공연 '한국남자'는 민요와 재즈의 즉흥적 감성을 기반으로 우리 음악을 재해석 하며 관객과 교감을 나눈다.

결출한 소리 실력과 파격적인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하는 소리꾼 이희문과 재즈 밴드 프렐류드, 소리꾼 노병이 공동기획한 '한국남자'가 오는 3월 4일 오후 7시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을 찾는다.

공연은 과거 바깥집안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던 사랑방 형식을 빌린다. 7명의 한국남자출연진들은 극장을 사랑방 삼아 재담과 소리를 펼친다.

이들은 앞만 보며 달리는 남자와 뒷바라지만 해온 여자, 앞뒤만 있고 중간은 없으니 이제 중간에서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및 심정 등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낼 예정이다.

무대에는 갈까보다 (경기잡가 '평양가'), 자진아리 (서도민요), 제전 (서도잡가), 군밤타령 (프렐류드곡), 난봉가 (서도민요), 이리령성 저리령성 (경기민요 방아타령), 육칠월 흐란날 (휘몰이잡가), 맹인덕담 (재담소리), 참춘가 (경기민요), 참부타령 (경기민요), 배 띄워라 (경기민요 이별가/뱃노래) 등을 엮어 들려줄 예정이다.

관람료는 전석 민원이다.

/정해은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2월 20일>

<p>▶ 쥐띠 48년생: 손재수가 발생할 수 있다. 60년생: 뒷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가라. 72년생: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운. 84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자신의 운이 좋을 때 베풀어라.</p>	<p>▶ 소띠 4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이다. 투자는 불리하니 다음으로 미뤄라. 61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이다. 73년생: 자신만만한 일도 실수 할 수 있는 운이니 매사에 진지하게 일하라.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일찍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p>	<p>▶ 호랑이띠 5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하나씩 진행해 나가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건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운이다. 74년생: 같은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은 목표로 인해 경쟁구도에 처하게 된다. 86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p>	<p>▶ 토끼띠 51년생: 자신보다 연장자인 사람으로 인해 근심할 일이 생기는 운이니 주의하라. 63년생: 세밀한 일이나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뤄라. 75년생: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금액을 낮춰야 가능할 것이다. 87년생: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운.</p>
<p>▶ 용띠 52년생: 출타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64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는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는 운이다. 76년생: 분주하고 정신없는 운이다. 88년생: 동기들과 함께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p>	<p>▶ 뱀띠 53년생: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65년생: 작은 금액은 얻을 수 있으나 큰 금액에 관련된 것은 기다려야 이루어진다. 77년생: 사고수가 따르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89년생: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재고해볼 것.</p>	<p>▶ 말띠 54년생: 너무 강하게 처신하면 적만 만드는 격. 6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니 주변을 잘 살펴라. 78년생: 동기들과 화합이 잘 되고 편안한 하루다. 90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운.</p>	<p>▶ 양띠 55년생: 재물이 욕심을 부리면 신상에 좋지 않다. 6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겨나니 대립하지 말고 무시하라. 79년생: 출항하면 손재수가 따른다. 91년생: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는 것은 실력의 지름길이다.</p>
<p>▶ 원숭이띠 56년생: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발생하는 운이다. 68년생: 부부나 연인 사이에 의견이 맞물려 마음상하는 일이 발생하는 운이니 주의하라. 80년생: 뒷사람하고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92년생: 원행은 심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p>	<p>▶ 닭띠 57년생: 고집은 금물. 69년생: 어찌나 내 것이 되지 않을 상황이었으니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 81년생: 동기들이나 손아랫사람보다는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93년생: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신호임을 기억하라.</p>	<p>▶ 개띠 46년생: 식욕이 따르고 인덕이 생기는 운. 58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점심시간을 활용해 바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70년생: 너무 많은 물에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다. 82년생: 한꺼번에 많은 것을 허려 하지 마라.</p>	<p>▶ 돼지띠 47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나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후안무개는 풀린다. 5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더 큰 이익이 따른다. 71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 아주 좋은 날. 83년생: 이상운이 좋아지니 속마음을 숨기고만 있지 말고 표현해라.</p>